꿈글터,
봄을 쓰다.

꿈글터,
봄을 쓰다.

연락처 033·653·6375 **이메일** gssw6375@gmail.com **주소** 강릉시 강변로510 **홈페이지** www.gssw.or.kr

여는 글

함께 써 내려간 희망의 한 페이지를 펼치며,

싱그러운 잎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물들어가듯이 우리 복지관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소중한 결실이 하나 맺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세월과 이웃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긴 손글씨 모음집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일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어르신들께서 배움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열정은 저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 용기 있는 도전에 우리 이웃들은 따뜻한 손글씨로 화답해주셨습니다. 정성껏 눌러쓴 응원의 문장들은 어르신들의 공책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배움을 향한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라, 가장 빛나는 때. 배움의 문을 두드려주시고, 삶의 이야기를 글씨로 나눠주신 우리 꿈글터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따뜻한 마음으로 손글씨 후원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님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 당신들이 바로 우리 마을의 희망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께는 이 모음집이 자부심이 되고, 주민들께는 나눔의 보람을 느끼게 하며, 우리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연대의 기록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소외없는 이웃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일동

꿈글터,

봄을 쓰다.

어르신들의 교실, 꿈글터 소개

꿈글터에서 꿈을 쓰다.

목표	학습 기회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문해 역량 강화
기간	2025년 5월~12월
대상	공부하고자 하는 어르신 24명(복지관 13명, 주문마루 11명)
장소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행복실 · 보람실
내용	한글교실, 영어교실, 한글반 나들이, 시화전 등
비고	해피빈 및 손글씨 캠페인을 통해 모집한 후원금은 한글교실 사업에만 사용

덕분에 꿈글터에서 새로운 순간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르신 문해역량강화

92점 달성

사전 사후 100점 기준

참여자 만족도

3.9점 달성

4점 척도 기준

자기효능감 변화

9.7% 향상

사전 대비 사후 척도 결과

배움의 순간들

우리가 손글씨를 쓴 이유

1 국제 문해의 날을 맞아, 읽고 쓰는 소중함을 알아가기

국제 문해의 날은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65년 제정한 국제 기념일로 매년 9월 8일에 기념해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즉, 문해가 인간의 기본권이자 평생학습의 기반임을 강조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문해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시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소소하게라도 이러한 뜻을 살려, 일상을 연결하는 읽고 쓰는 능력의 소중함을 함께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2 한글 교육, 놓쳐선 안 될 기회, 140만 명의 어르신 교육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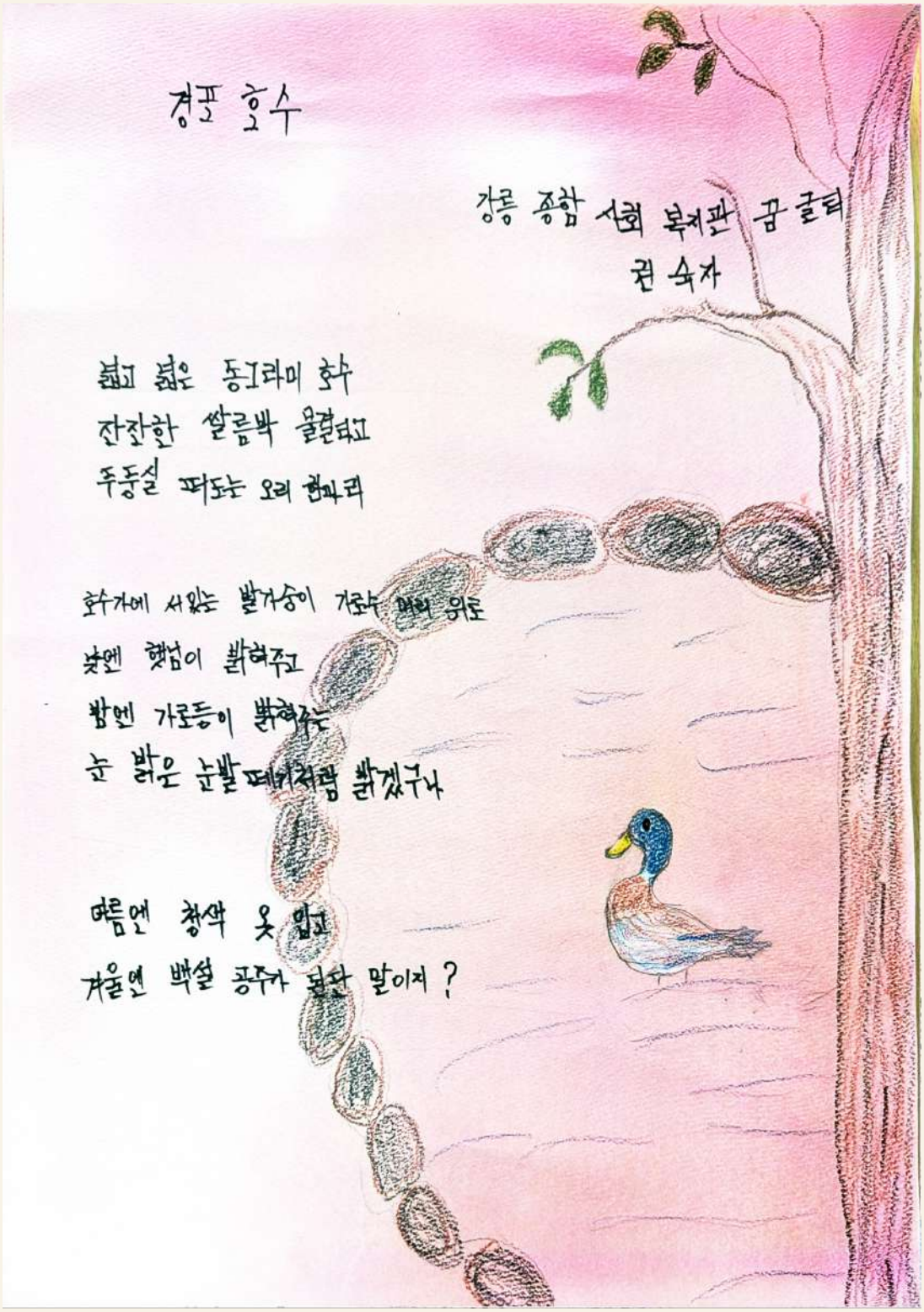
써야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를 안 보내줘서 못했는데…
고지서를 읽을 줄 몰라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임에도 아직 약 14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글을 잘 읽지 못합니다. 강릉도 중학 학력 미만 인구가 약 24,822명(전체 성인의 14%)이나 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우는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글을 모른다는 사실은 불편함 그 자체를 넘어 어린시절의 상처와 차별에 대한 서러움입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은 삶의 기본 권리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3 글자와 삶을 연결하는 디딤돌, 한글 교실

나의 세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소중한 가족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다 같이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요.

꿈글터에서 어르신들은 인생의 봄날을 한글로 다시 쓰며 삶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적는 일조차 힘들었던 참여자들은 이제 혼자서 편지를 쓰고, 길을 찾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못 나온 학교를 이제라도 다니는 기분이다”**라는 말씀처럼, 어르신들의 삶은 배움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움, 사랑, 감사, 삶에 대한 찬사까지. **어르신들의 배움은 삶의 역사이며, 이루지 못한 어릴 적 꿈을 늦게나마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경포 호수
강릉 종합 사회 복지관 꿈 글터
권 숙자
넓고 넓은 동그라미 호수
잔잔한 쌀름박 물결타고
두둥실 떠도는 오리 한마리
호수가에 서있는 발가숭이 가로수 머리 위로
낮엔 햇님이 밝혀주고
밤엔 가로등이 밝혀주는
눈 밝은 눈발 떼기처럼 밝겠구나
여름엔 청색 옷 입고
겨울엔 백설 공주가 된단 말이지 ?

학교에 오면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꿈글터
최옥순

봄이 오면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난다

학교에 오면
하하 호호 웃음소리
내 마음이 녹고
꽃이 활짝 피어난다

마음속 시 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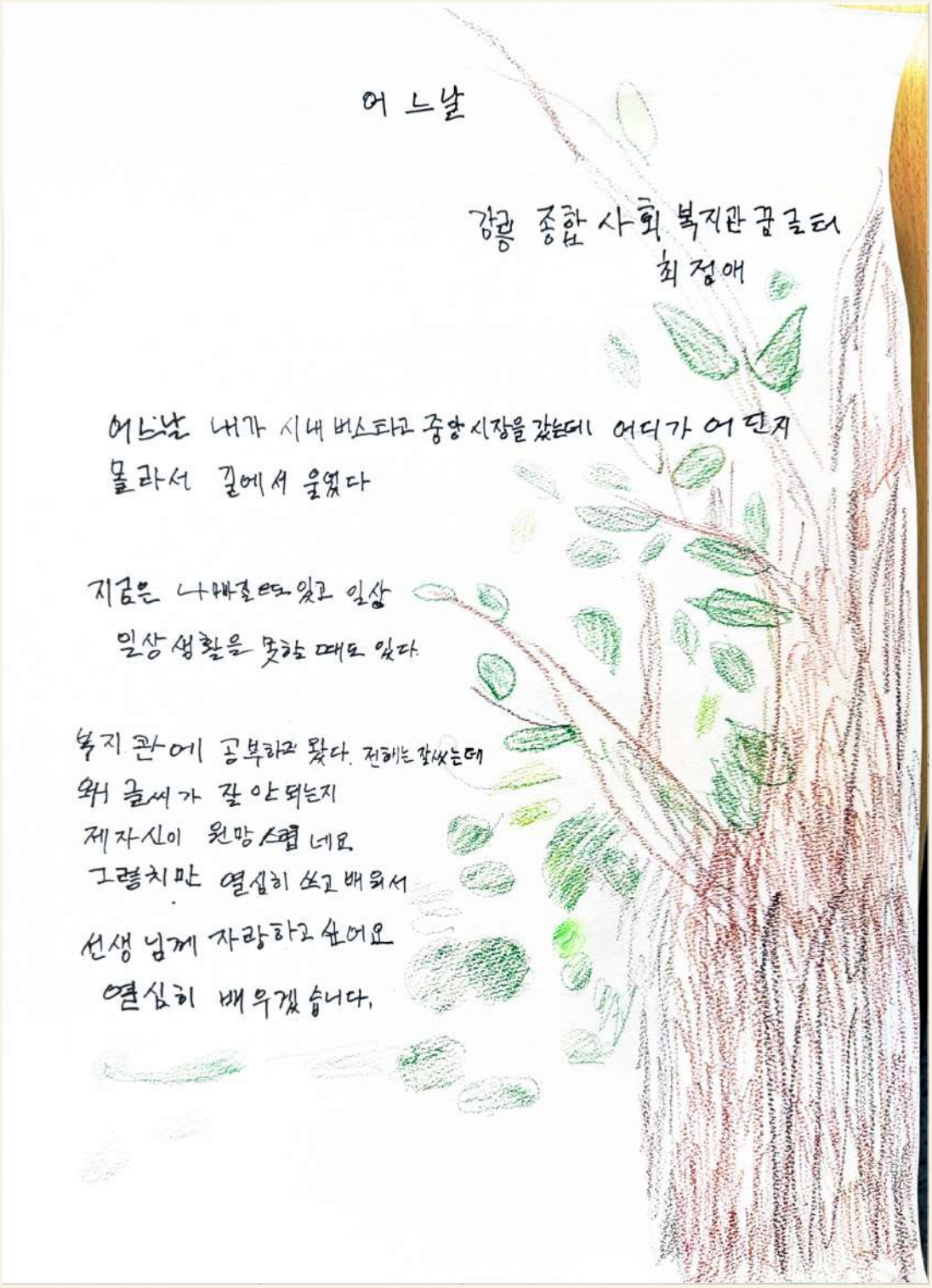
어느날

강릉 종합 사회 복지관 꿈 글터
최 정애

어느날 내가 시내 버스타고 중앙시장을 갔는데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길에서 울었다

지금은 나빠질 때 있고 일상
일상 생활을 못할 때도 있다.

복지 관에 공부하고 왔다. 전해는 잘 쓰는데
왜 글씨가 잘 안 되는지
제자신이 원망스럽네요
그렇지만 열심히 쓰고 배워서
선생 님께 자랑하고 싶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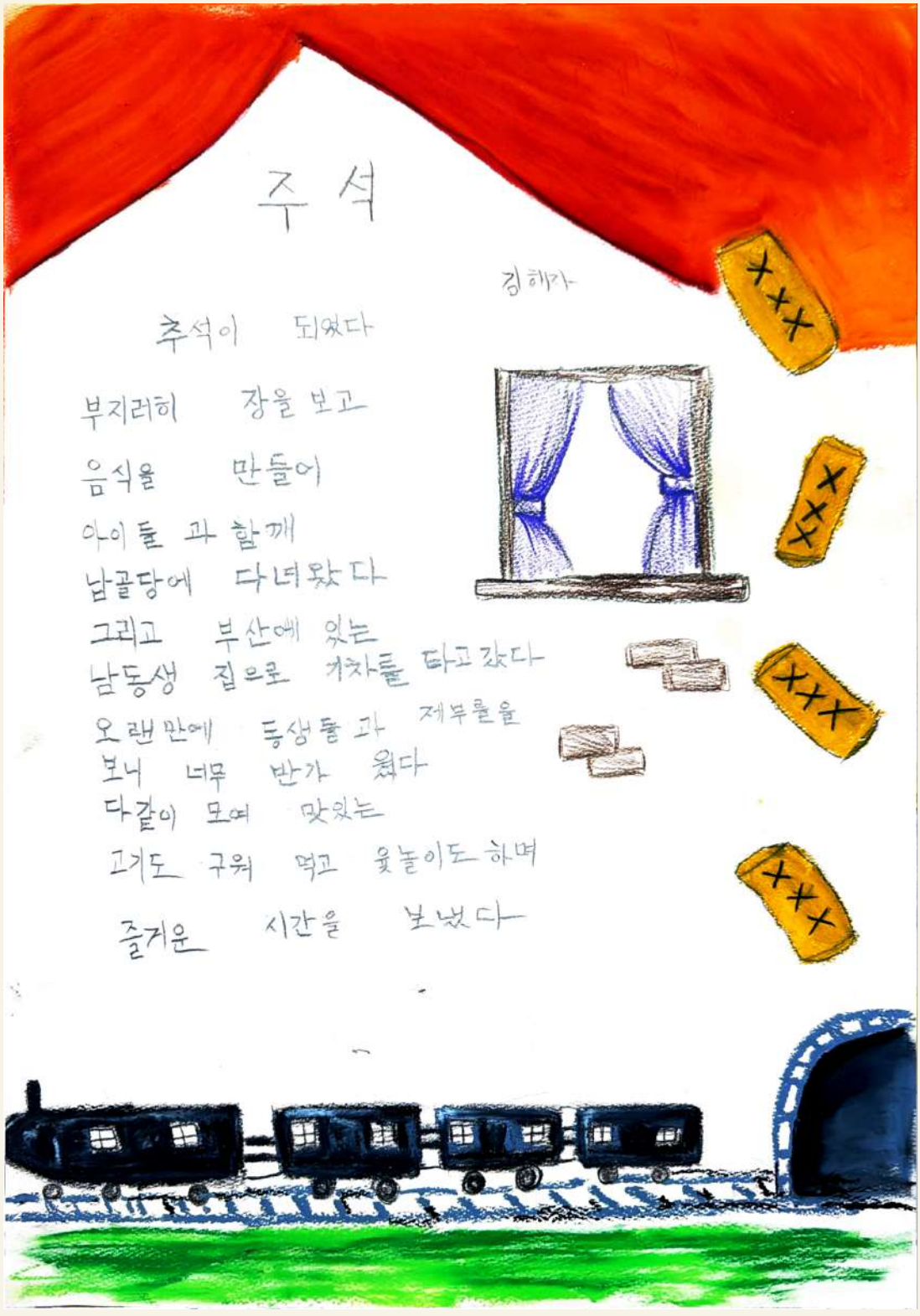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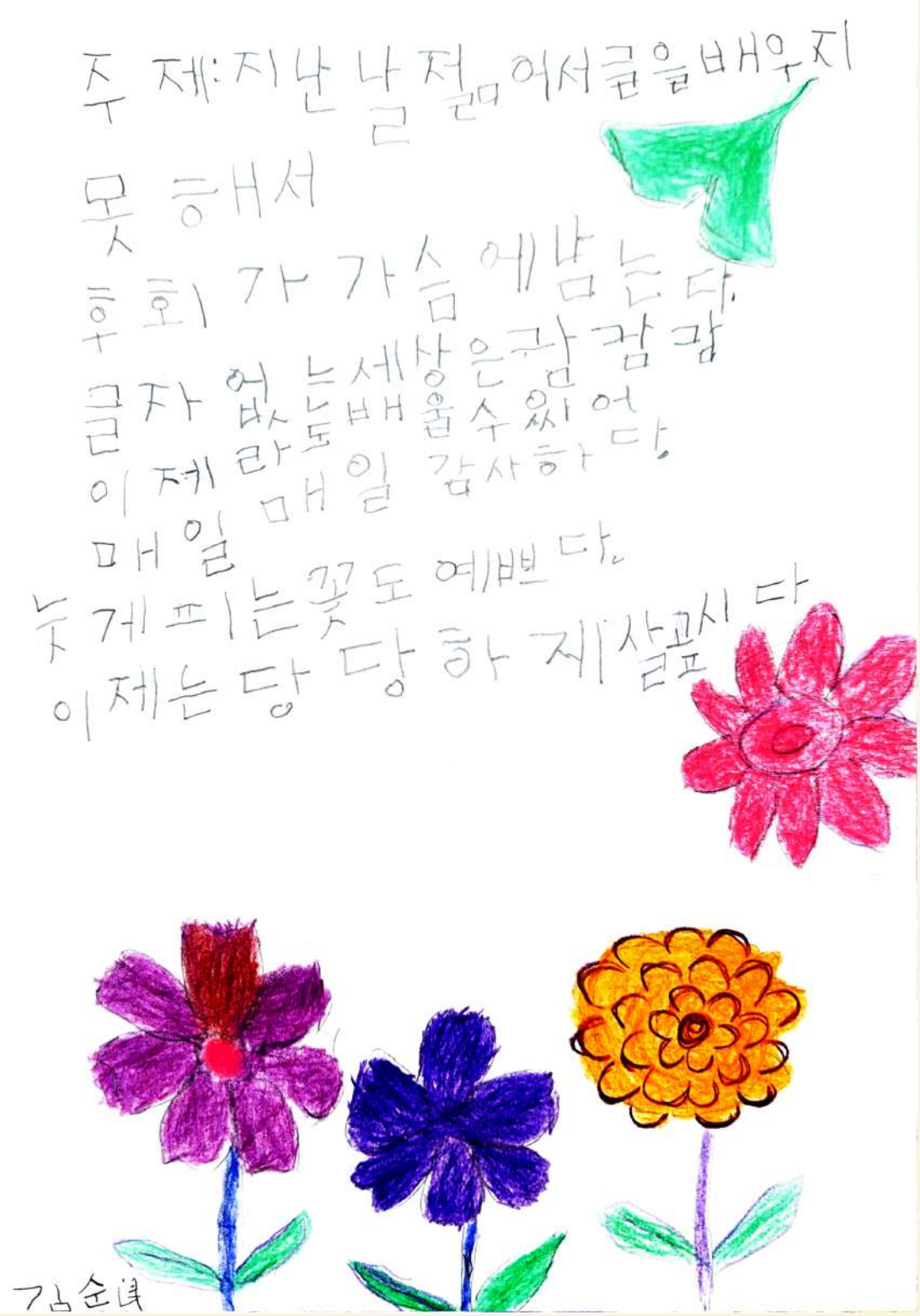
김춘자

오늘 아침 딸이 고등어림
해주셨고 딸이 해줘서 그런가
어느때보다 더 맛있었다
그고 경로당에 가서 친았다
이제 복지관 에 가야겠다

마음속 시 한 편


추석
김해가
추석이 되었다
부지런히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남골당에 다녀왔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남동생 집으로 기차를 타고 갔다
오랜만에 동생들과 제부를을
보니 너무 반가 웠다
다같이 모여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윷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음속 시 한 편


주제:지난날 젊어서 글을 배우지
못해서
후회가 가슴에 남는다.
글자 없는 세상은 깜깜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
매일 매일 감사하다.
늦게 피는 꽃도 예쁘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
김순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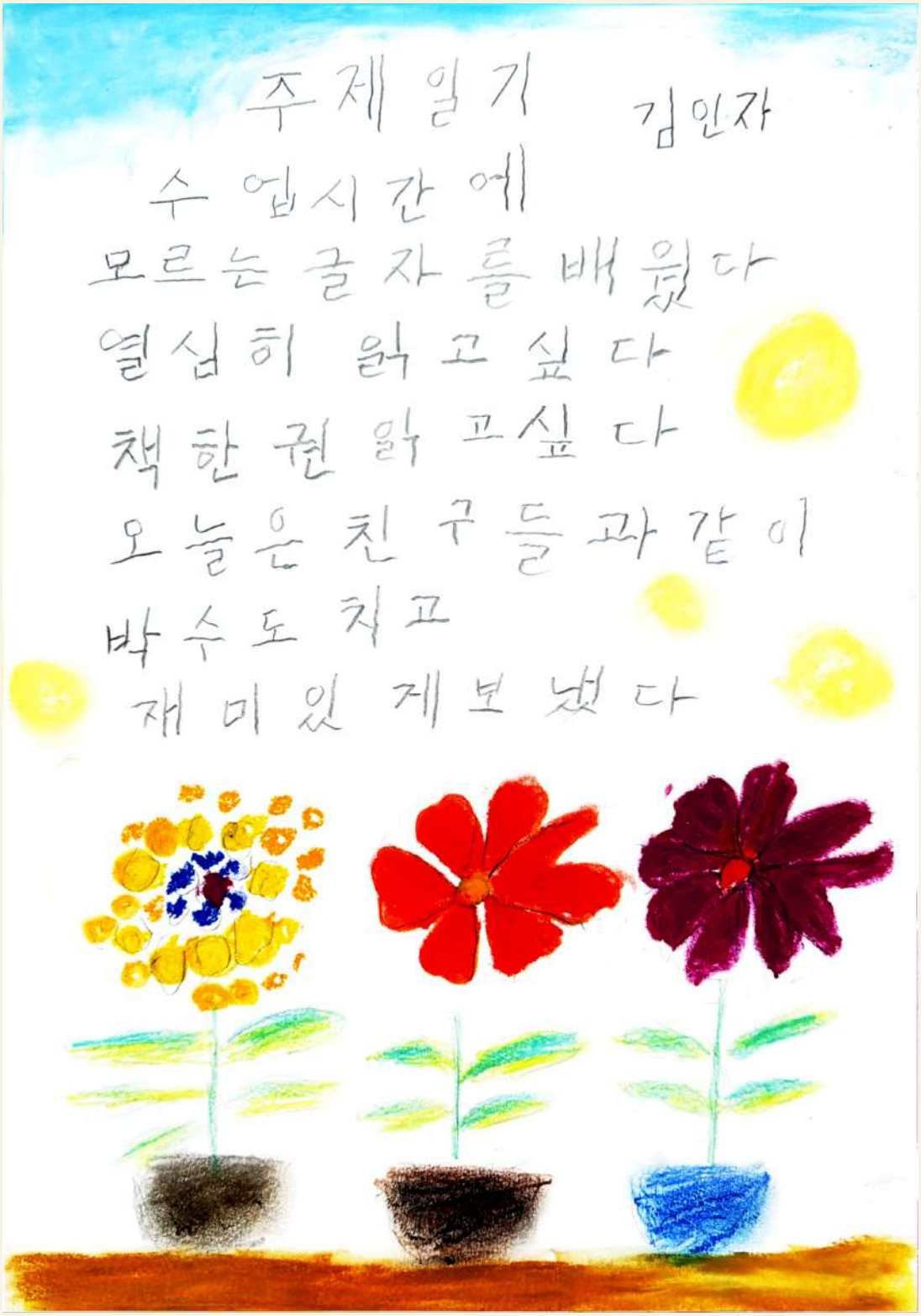
한국에 와서 생긴 일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꿈틀터
임홍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내 속에 음악이 숨어 있는 것을
노래를 배우면 마음이 즐거워요

복지관에 와서 알았어요
나를 위해 한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글을 배우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복지관으로 가요


주제일기
김인자
수업시간에
모르는 글자를 배웠다
열심히 읽고 싶다
책 한 권 읽고 싶다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박수도 치고
재미있게 보냈다

손글씨

최명옥

멀리는 소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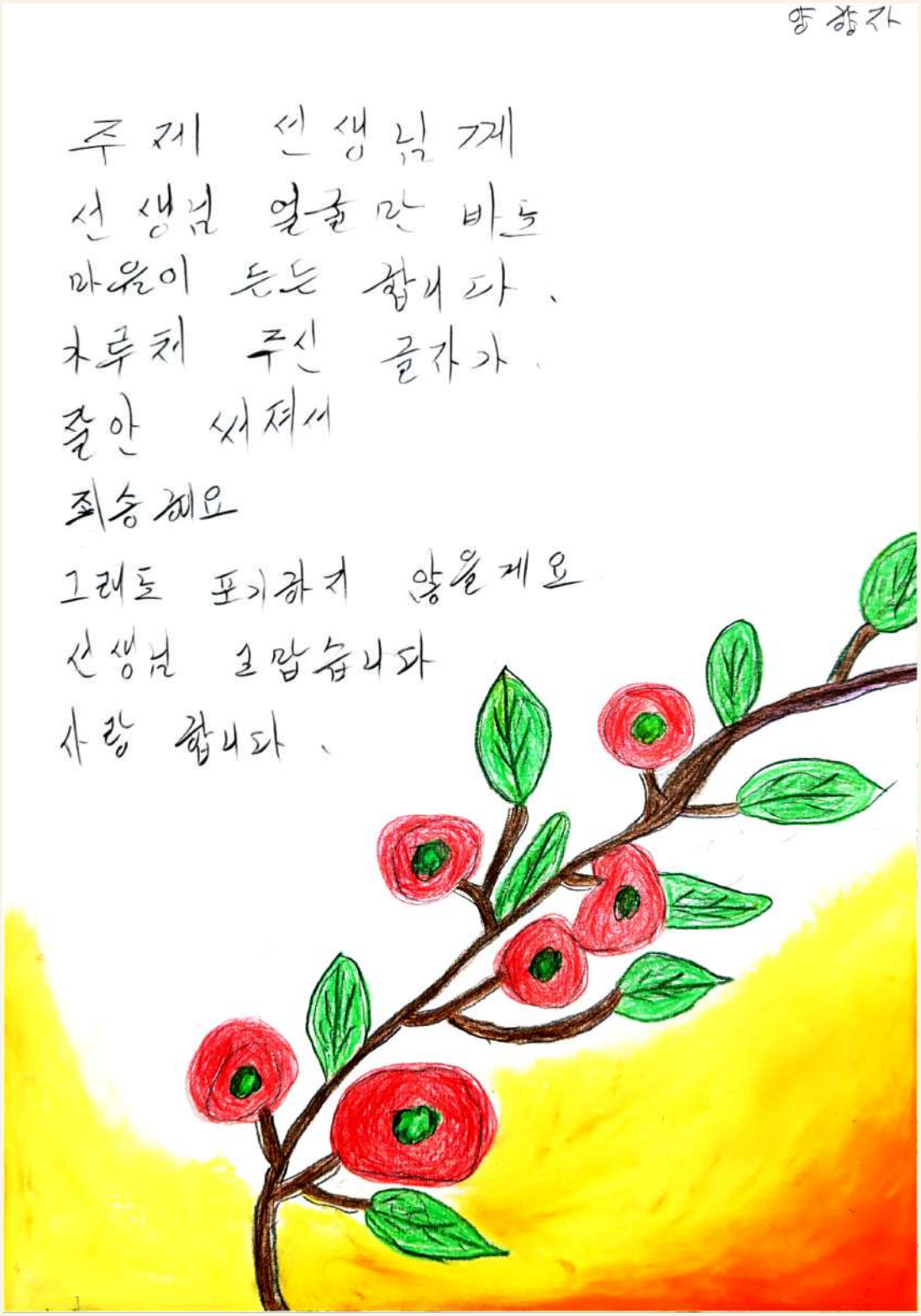
사랑합니다 써본다

글자는 삐뚤삐뚤하지만

마음은 곱게 담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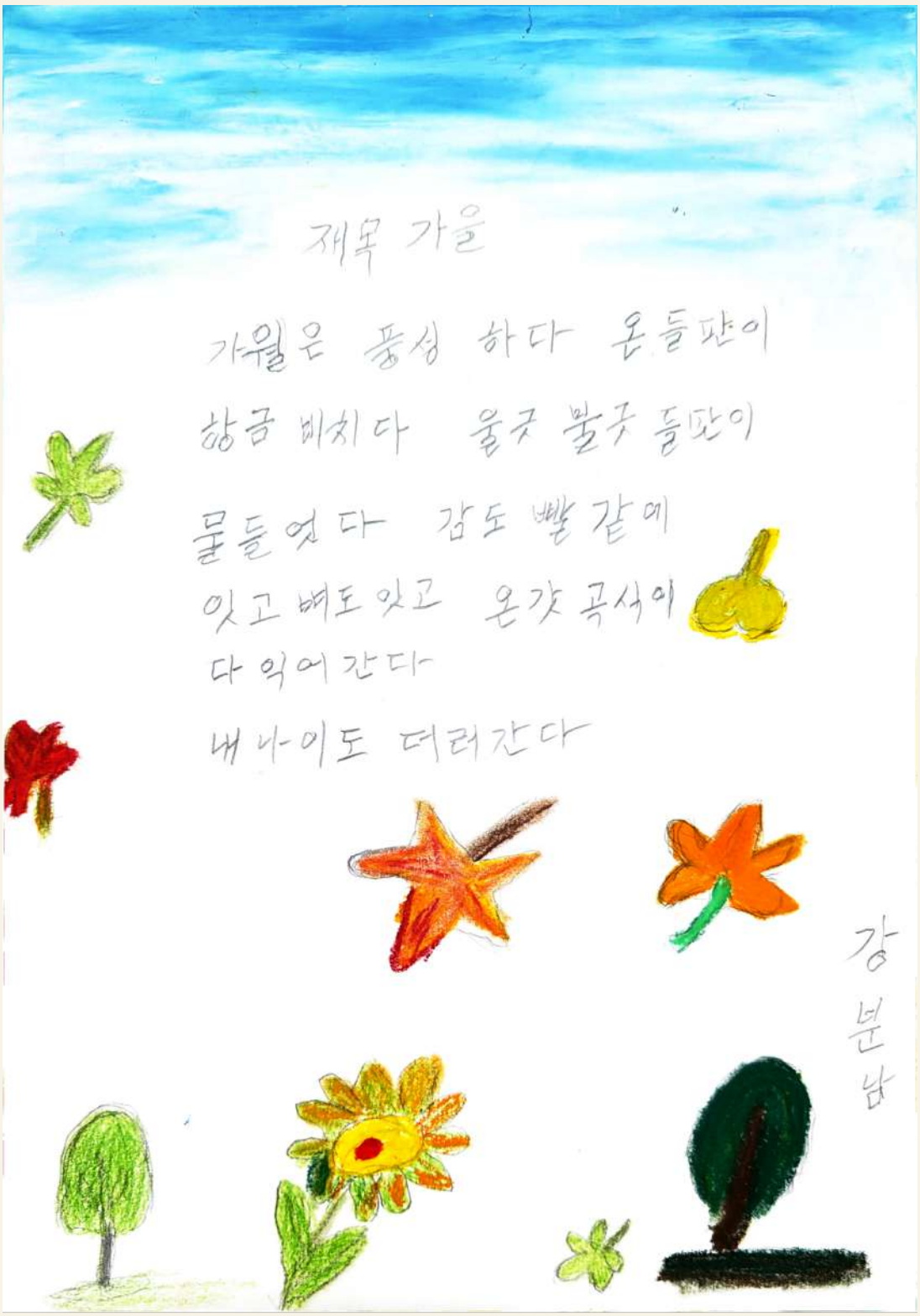
이제 내 손으로 내 마음을 본다

마음속 시 한 편


주제 선생님께
선생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든든 합니다.
차루체 주신 글자가
좋아 써져서
죄송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 합니다.

제목 나의 꿈

공부를 하니 만나고 싶은사
람이 많다.
아들집도 가고 싶고 손주일
굴도 보고 싶다.
도 해보고 싶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시장 구
경도 가고 싶다.


제목 가을
가을은 풍성 하다 온들판이
황금 비치다 울긋 불긋 들판이
물들었다 감도 빨갛게
잇고 배도 잇고 온갖 곡식이
다 익어 간다
내 나이도 더러 간다
강 본 남

마음속 시 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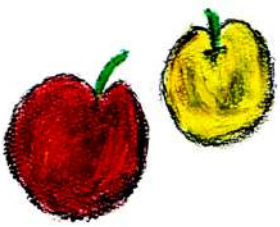
하루

전 매 자

주문마루센터 가는 날.
오늘은 미술공부 하러 가는 날
늦게나마 배울일이 있어좋다
할일이 없어도 주문마루센터에
오늘날을 기다리게 된다
행복하다

가 을

가을은 풍성하다 배 해물
천고 마비의 계절 모든 과일과
곡식도 햇살이 제일 좋다!
가을에는 예쁜 단풍
향기로운 국화 향기
모두가 좋아하는 계절
단풍 여행 떠나고 싶다!
곧 떠날거다!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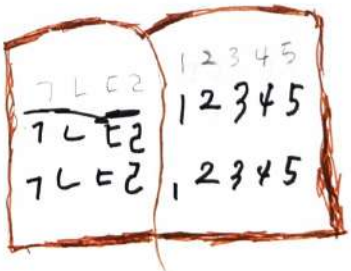
강릉 종합사회 복지관 꿈글터

심화자

나는 한글교실에 다닌다
1 2 3 4 5를 배운고
ㄱㄴㄷㄹ을 배다
어느 날 책꽂이에서

내 이름 심화자를 보고 내 책을 찾았다

찾았다 내 이름
찾았다 내 책
배워서 식당에서 진
음식도 읽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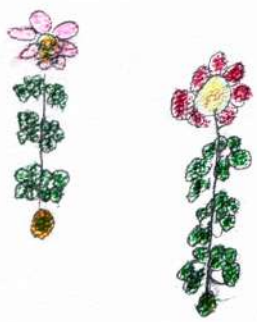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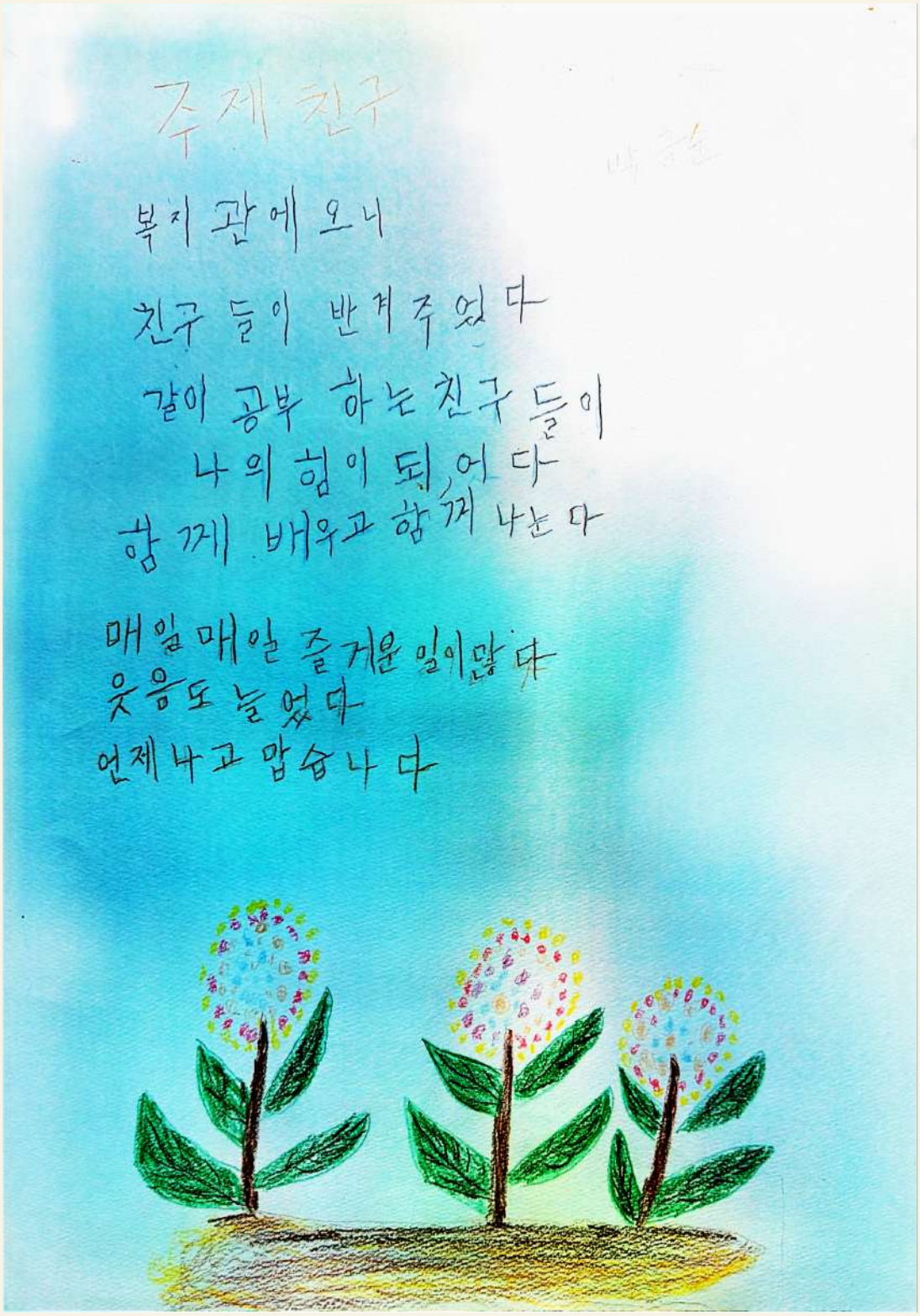
어려운 글쓰기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신정순

오늘 아침 아들하고 병원에 갔다
아들은 엄마가 방에 잠을 못자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했다
그러면 안되지요 웃으면서 약을 처방해 줬다

공부하러 오라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내 이야기를 글로 써보라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르게 모르겠다
글을 이어가지 못하고 생각이 안난다




주제 친구
복지관에 오니
친구들이 반겨주었다
같이 공부 하는 친구들이
나의 힘이 되어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눈다
매일 매일 즐거운 일이많다
웃음도 늘었다
언제나고 맙습니다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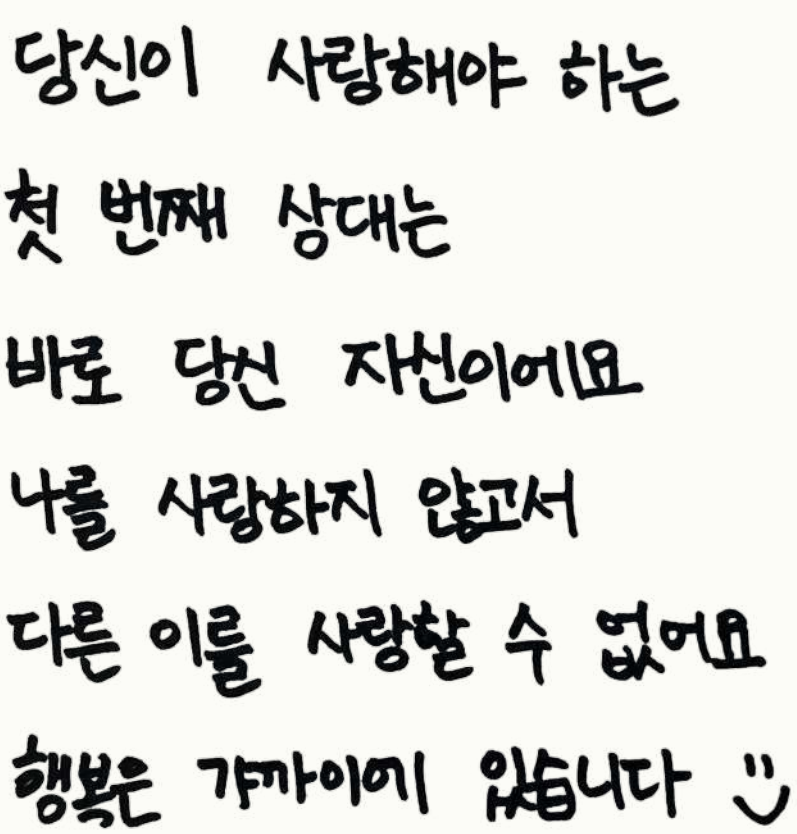
가끔 메스컹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늦깎이 한글을
익혀서 사화를 전서하는 것을 볼때가 있어요.
그럴때면 늘 엄마생각을 합니다.
엄마을 외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외할머니는 홀로 집안살림을 하시느라
마음껏 공부를 다하지 못하셨지요. 또 시집오셔서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또 공부를 접으셨지요.
늘 공부에 배고파하시던 엄마!
엄마의 공부갈증을 풀어주지 못한 못난 딸입니다.
어르신들 공부에 때는 없습니다. 화이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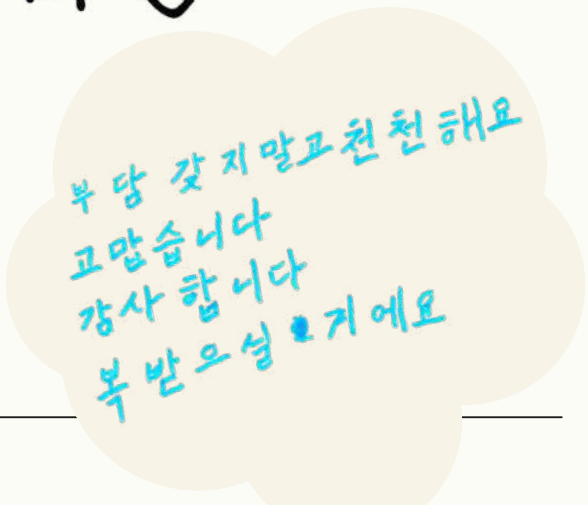
한글 공부하면서 덕분에
밝아 졌어요.
한글 공부 덕분에 한 자리도
더 알게 되었어요.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루세요.
응원할께요.

글쓴이 홍*란님

작성이유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 글로 전하세요.
응원합니다♥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글쓴이 최*원님

작성이유 아직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젊은 저도 공부가 너무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참여합니다. 정말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배움에는 시기가 없는거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움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응원해줘서고마워요.
앞으로도열심히배울게요.
배움에는끝이없다.

글쓴이 지앤지오 말글터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알고자하고 배우고자 하는 참여에
응원을 드립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많이 듣으시고 더 많이 배우셔서
좀더 유익한 한글의 길에 입문하시길
응원 합니다.

한글 공부로 한국말 많이 알아요.
한글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글쓴이 김*하님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다면
밤새 정부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 다는지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가지 라든가 감나무가지 라든가
풀장미 줄기라든가 담생이 줄기 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때」

글쓴이 이*수님

작성이유 고집 센 비도, 도리 없이 내리는 매서운 폭설도 우리의 마음을 가치있게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삶이 힘들고 때론 우울할지라도 그 힘들과 어두움은 우리의 도전이자 시도를 있게 하는 존재일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본다.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자

순을 뜨자 사람들로 가득한 강당이었고 사람들이 내 앞에 모여 있었다.
숙음기를 들고 지금 심경이 어떠시냐고 묻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꾸 말을 하라고 하고 그러나 나에게는 할말이 없어요
하늘아래 흔들리고 물을 마시며 자라나는 토끼들 같은 삶을 살아온걸요

순을 다시 뜨니 바람 부는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지금요 더 늦을 순 없어요 자칫하면 모두가 위험해져요

무서워서 가만히 서 있는데 수가 나를 밀었고
순을 뜨면 익숙한 천장, 순을 뜨면 혼자가는 먼 집, 순을 뜨면 영원히 반복되는 꿈 속에
갇힌 사람의 꿈을 꾸고 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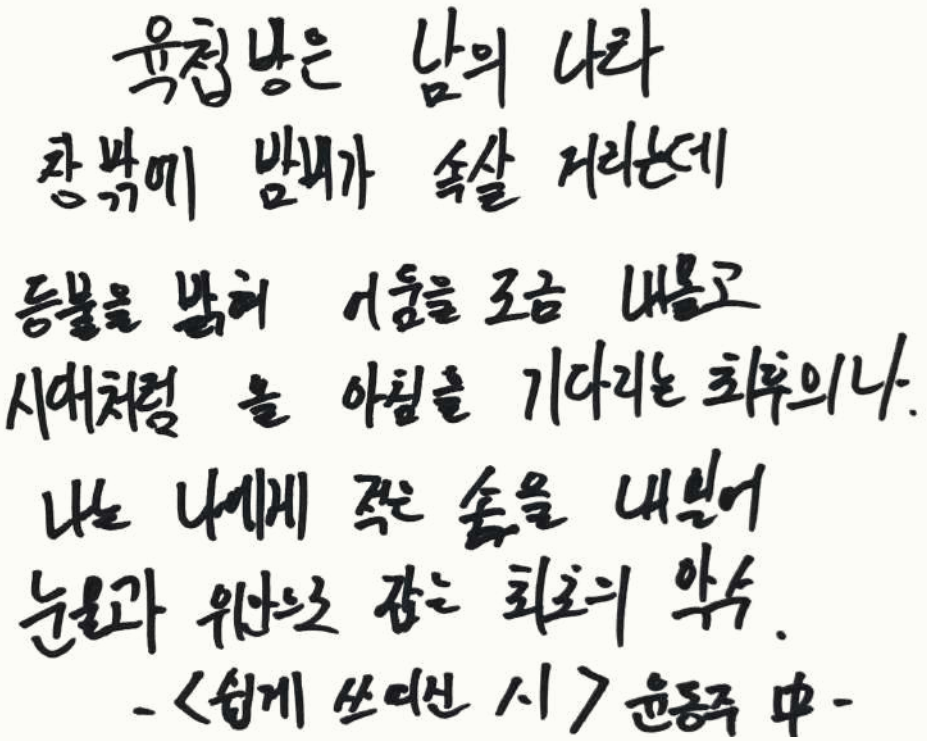
그러나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고
애당초 마음도 없지만

순을 뜨니 토끼들 하나가 자신이 토끼인 줄 알고 머리를
긁고 있었네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작성이유 글은 마음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다. 정리되지 않은 채 얽혀있는 감정들도 글로 적어내리면 녹아내린다. 모두가 그저 행복하고 편안하길 바란다. 감정들과 따스한 마음들이 상대에게 닿길, 전해지길 소망한다.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작성이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 공유하고 싶어 적었습니다.

솔향접십자 회원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어르신 모두 만수무강
하시고 행복하세요.

글쓴이 솔향적십자봉사단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글쓴이 안*희님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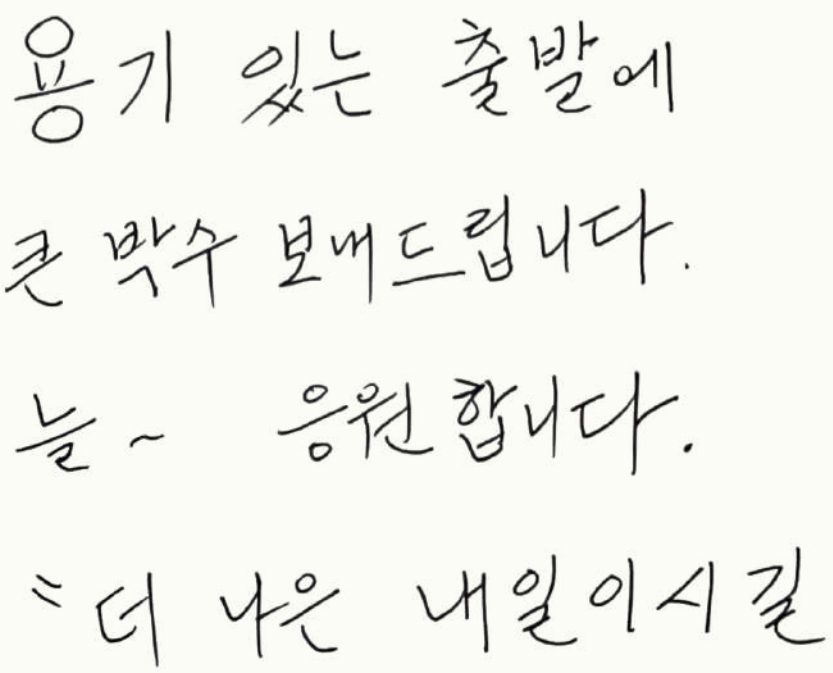
글쓴이 남*옥님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늦게라도 용기를 내셔서
한글공부를 배우시는 어르신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입니다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꽃처럼 환하게 웃
으며 예쁜글 쓰시는
그대가 아름답습니다
응원합니다.

글쓴이 박*희님

나를 위한 세가지 약속

신경쓸수 있을 만큼의 관계를 맺고
책임질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하며
감당할수 있을 만큼의 욕심을 내기.

글쓴이 김*희님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글씨가 삐뚤어도 상관없습니다.

도전하는 모습이 최고입니다!"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배움의 노력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항상
곁에서 응원 하겠습니다.
화이팅!!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어르신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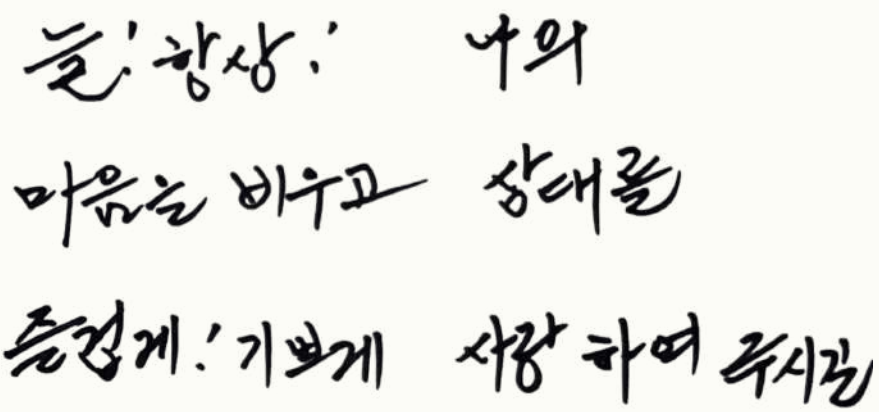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손글씨 쓰기 도전에 응원의 박수보냅니다.

한글자 한글자에 행복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안부 인사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무 탈 없이 하루가 지나가면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늘
좋은하루 되세요 화이팅!!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안녕하세요. 글의 힘이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데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하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만화도 봤어요.
제가 느낀 기쁨이 이걸 보시는 분께도 전해질 수 있길
우리 모두 즐겁게 살아가요.
여기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내년에 정찰 붙게 해주세요

제발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넌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그걸 보여줘.

너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너 자신에게!"

- 스누피 중 -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

그 꿈은 이루어질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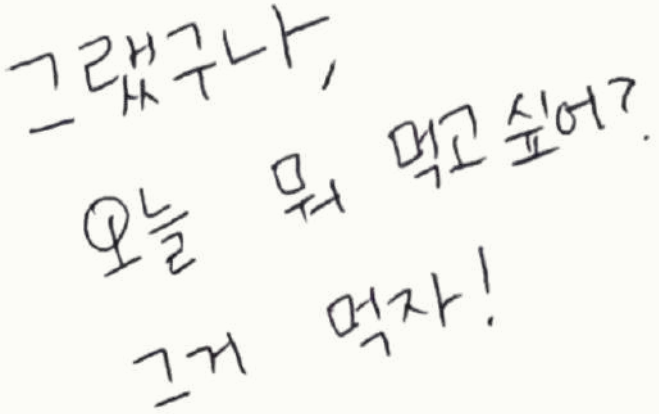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늘 완벽한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는 것만으로
너는 멋있는 아이야. 삶이 지치고 힘든거도 꾹꾹히
이겨내자. 화이팅!

제가 응원합니다
화이팅할께요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어르신들의 발자취가 남은 길 위에서
젊은 마음은 삶의 깊이를 배웁니다.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나라는 존재와 20년동안 같이 지내온 우리 가족 우리서로서로
가족이라는 것이 처음이기에 부족한 점도 많고 상처주는 일도 많았지만
상처에 새살 돋듯이 더욱 친밀하고 관계가 회복되며 더 나타질 수 있
었던 것 같다 누구나 다 힘든일을 겪고 그 힘듦을 매꿔 가듯이 우리
다 남은생을 이겨내면서 살아보자~ 지금 내가 집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 집에 자주 못가지만 늘 그렇듯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시간이
많이 거나게 되면 오다시 부산에서 같이 사는날이 오겠지. 모두
다 힘내서 같이 살게되는날 웃으면서 보길~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작은 발걸음이 결국 큰 길을 만듭니다.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당장 사는게 순탄치 않아도 언젠가는 빛 들날이 올 것이니
다들 포기하지 말고, 자치지 말고 조금만 더 기운을 내봅시다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 헬렌 켈러

생명이 있는한 희망은 있다.

- 키케로 -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그것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춘보다 6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20대라도 인간은 늙지만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Samuel Ullman - Youth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그럴땐 자신에게
칭찬의 한마디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참 잘왔구나
고생했네
힘들었지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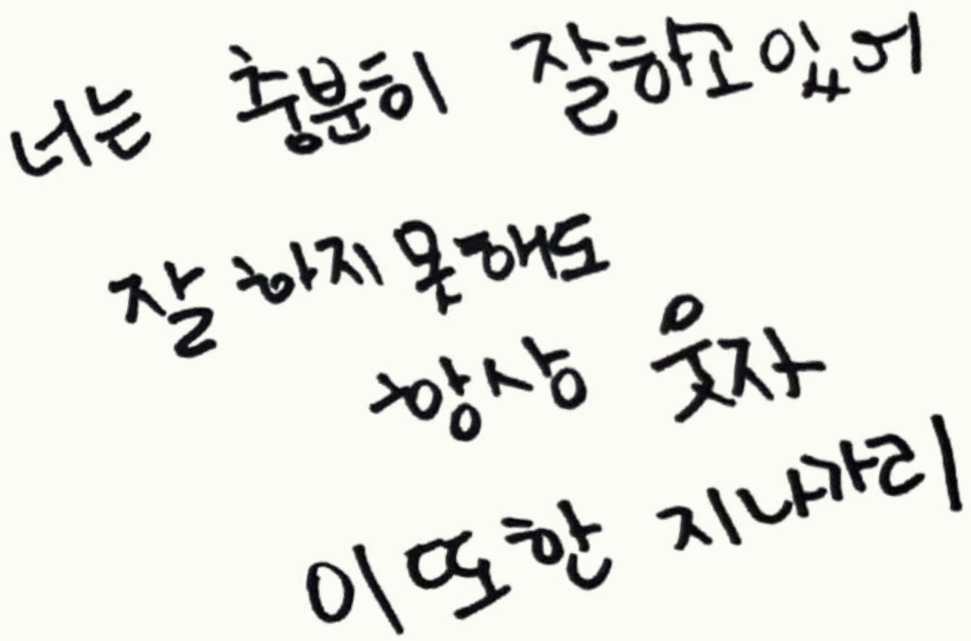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칭찬의 한 마디를 보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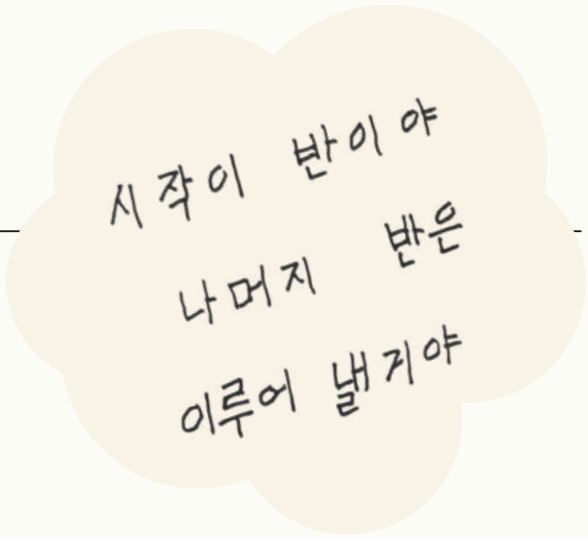
소소한 한 마디가
그 어떤 힘보다 강하게 되어있습니다.

- 좋은생각 정용철 -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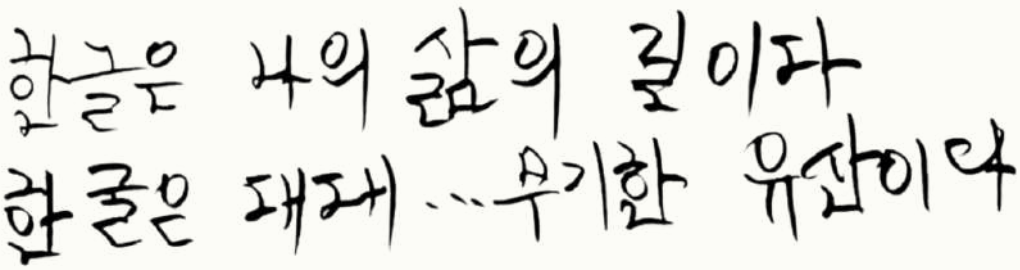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글쓴이 익명의 지역주민

희망을 응원하는 손글씨

고맙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고마워♡

힘을 내

당신 때문에 늘 고마워요~

가끔 하늘을 올려보며 항상 새로운 것에도 행복해지자.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망설이지마!!

쓰면 이루어진다. 믿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아자 아자 화이팅!

처음에는 이 나이 먹고 무슨 공부인가 싶었는데,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오게 되었어요. 막상 다녀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던 글들도 많고 잘 못 알고 있던 것도 많았는데 아직 받침 들어간 건 좀 그래도 다른 건 잘 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내년에도 꼭 나오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학교 나온 사람이 몇 없을 거에요. 그 때는 그랬거든요. **남자면 학교를 보내주긴 했는데 우린 1~2년 다니거나 아예 못가고 그랬어요. 그렇게나 한글을 배우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 고맙네요.** 많이 어렵지만 꾸준히 다니다 보면 더 나아지겠죠.

솔직하게 아직 글을 읽거나 쓰는 건 못해요. 따라서 그리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라도 더 적고 읽고 배우다보면 언젠가는 혼자서 글도 쓸 수 있게 될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늦게 시작했으니 더 열심히 배워야죠.**

예전부터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또 '내가 이제 다 늙어서 뭘 배우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고, 주에 한 번밖에 안하는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쉬운 글자는 이제 눈에 잘 들어오는데 어려운 글자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나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좋고 무엇보다 내 이름을 알아보면서** 적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꿈글터 어르신 변화수기

요즘 들어서는 오늘 있었던 일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한글이라도 배워야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일인데, **어느새 복지관에 오면 만나는 이웃도 생겨서 만나면 그저 반갑기만 하네요.** 선생님은 한글을 자주 쓰다 보면 잊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러 복지관에 온답니다.

글자는 알긴 알아도 쓸 줄을 몰랐어요. 발음만 할 수 있어서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할 때는 피하기 바빴죠. 복지관에서 한글 공부를 한다기에 궁금해서 참여해 봤던 것이 이렇게 겨울까지 달려왔네요.** 같은 단지 이웃들과 함께 배우니 더 좋기도 하고, 몰랐던 문장들을 이젠 술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 삐뚤빼뚤했던 제 글자도 어느새 정자로 쓰고 있는 걸 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해서 매년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올해도 더 잘하고 싶어서 참여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제 글씨를 보니까 뿌듯한 감정**이 제일 먼저 드는 거 있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공부하는 것도 잊고 살았어요. '나는 한글을 배울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복지관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입김이 나오는 겨울까지 꾸준히 나왔네요. 계속해서 까먹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쓰는 연습을 한다면, **언젠가는 고민 없이 한 문장을 예쁘게 쓸 수 있겠죠?**

꿈글터 어르신 변화수기

전에 한글을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글씨 쓰는 법부터 읽는 방법까지 다 알게 된 거죠. 밖에 다닐 때도 글씨가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공부하면서 한글의 뜻을 알게 되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게다가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림도 같이 그리면서 수업을 하니까 더 재미있고, 배움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사실 공부를 하려면 멀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을 텐데, 제 건강 문제 때문에 혼자 외출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주변 이웃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더욱 힘이 났죠.**

공부가 금방 끝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계속된다니 정말 좋아요.** 글자를 읽을 때 받침 있는 글자는 특히 어려워서 잘 읽지 못했었는데, 선생님이랑 꾸준히 배우다 보니 이제는 '밤'이나 '국' 같은 간단한 글자들은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꿈글터 어르신 변화수기

원래는 매일 일 갔다가 집에 있다가만 하다가 추천해줘서 와봤는데, 덕분에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배우다보면 언젠가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면서 글씨 쓰는 게 많이 늘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생기고 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직 한글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학교도 못나와 글을 배우고 싶던 것은 이룬 것 같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살면서 배운 게 없으니 글도 못 읽고 쓰는 것도 엉망이였어요. 그래도 꿈글터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글자라도 더 배우고 더 적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원래 못 읽던 글들을 읽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글을 제대로 못쓰는게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요새는 글도 쓸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내년에도 **만약 한글 교실을 한다면 나는 꼭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한글 공부하면서 한글을 더 많이 알고, 쓰는 것도 글이 많이 예뻐진 것 같아서 좋아요.**

사회복지사 실천수기

사회복지사 2년차에 맡은 꿈글터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생각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함께 공부하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지 고민하며 만남을 이어가니 곧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방학 중 어르신들께서 “공부는 언제 시작해요?”고 물으실 때 가장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 때 내가 먼저 공부를 함께 돕고 친해져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이 마음이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앞둔 지금, 공부를 향한 열정으로 함께 달렸던 방학 공부 활동,
손글씨 캠페인 등 다양한 추억들이 어르신들과 겹겹이 쌓여 한 해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수정

꿈글터 한글교실을 시작하고 3개월, 어르신들께 글쓰기를 요청했다가 글자의 '뜻'이 아닌 '모양'만 보고 따라 그린다는 것을 깨닫고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무작정 글을 써달라고 한 제 자신이 죄송했던 순간입니다.

이후,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예시본을 준비해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엔 손사래 치셨지만, 곧 한 자 한 자 정성껏 채워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완성된 시화와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을 때, 자신의 글 앞에서 활짝 웃으며 뿌듯해하시는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용기와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소중한 공간인 꿈글터, 이 소중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늘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최태경

꿈글터,

봄을 쓰다.

손글씨로 마음을 담아 주신 후원자님들

어르신 교육권 보장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동화가든 두부연구소

이음더봉사단

임영라이온스

솔향적십자

주식회사 삼교리

지앤지오 말글터

강다방이야기공장

권창동 · 이제형 · 양영희 · 김선하 · 남미옥 · 박미희 · 안경희 · 홍순란 · 김진희

익명의 후원자님들과 65명의 네이버 해피빈 후원자님들

손글씨 캠페인에 함께한 서점 10곳

지앤지오말글터 · 강다방이야기공장 · 명경지수 · 깨북 · 인생서가 · 당신의강릉 ·

상상이상 · 이스트씨네 · 한낮의바다 · 윤슬서림

꿈글터,
봄을 쓰다.

어르신들의 배움은 계속됩니다.

2025 꿈글터, 봄을 쓰다.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기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편집인** 전근홍 · 이수정 · 최태경 **홈페이지** www.gssw.or.kr